

KEA Focus

대한전기협회 제44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쌍수)는 2월 26일 강남구 삼성동 소재 한국전력공사 무궁화홀에서 김쌍수 대한전기협회 회장, 박천진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 협회 부회장, 이사, 감사 등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4회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8년도 제43회 정기총회 회의록과 주요사업 실적을 보고한후 ▲ 2008년도 수지결산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 정관개정(안) 승인 ▲ 임기만료 임원 선임(안)을 심의, 의결했다.

김쌍수 대한전기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력산업계의 경영여건이 악화 되었으나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면서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맞추어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확충 등 환경과 경제성을 고려한 『제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전력산업의 발전설비 용량은 7만MW로 1961년에 비해 160배나 성장하였으며, 송배전 손실율, 호당 정전시간 등은 국제수준을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의 날' 기념 행사는 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정부 훈·포장을 수여하여 사기진작에 기여하는 전기계 최대의 행사로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임기 만료 임원에 대한 선임에서, 박천진 대한전기협회 상근 부회장을 선임해 3년 임기로 연임되었다. 또한 신입 부회장으로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정태호 전 한국동서발전(주) 사장을 선임했다.

임기만료된 양한식 전문이사 후임으로 박상덕 전 한전 전력연구원장, 신임 이사로는 전도봉 한전KDN사장, 유태환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최광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장을 선임했다.



박천진 상근부회장은 1951년생으로 중등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79년부터 공직생활에 몸 담아 왔으며, 산자부 가격조사과장, 아주협력과장, 전력산업과장(부이사관)을 거친 후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근무해 왔다.

박상덕 신임 전문이사는 1952년생으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원자핵공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전에는 1977년 입사해 전력연구원 신형원전개발부장, 정책개발부장, 연구개발그룹장, 안전분석그룹장, 본사 기술기획실장을 거쳐 전력연구원장을 역임했다.

한편 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남호기 한국남부발전(주) 사장, 김준철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회장, 송길영 전 고려대 교수, 정현교 전 기초전력연구원장에 대해 공로패를 수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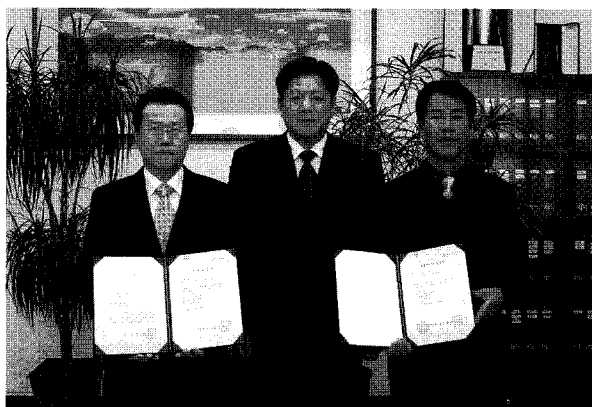
KEA Focus

장학회 이사회 개최

대한전기협회는 2월 18일 협회 회의실에서 '장학회 이사회'를 열어 ▲ 전차 이사회 회의록 ▲ 2008년도 장학금 지급 실적 ▲ 기금 출연 등 장학회 업무보고를 하고 ▲ 2008년도 수지결산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 2009년도 장학생 선발(안) ▲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KEPIC 인증서 수여식



대한전기협회는 2월 23일 오후 4시 30분 협회 상근 부회장실에서 KEPIC(전력산업기술기준) 신규 인증업체에

대한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인증 수여식은 박천진 부회장, 안호현 KEPIC처장 등 협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원자력발전소 설치 및 시공분야의 삼부토건(주)와 원자력품목 열처리 역무 공급업체인 (주)삼영이엔지 등 2개 업체가 인증서를 받았다.

전력신기술 인증 수여식

이날 인증 수여식은 박천진 부회장, 이종섭 기술처장 등 협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회전형 굴삭기와 초속경형 고강도 콘크리트를 이용한 송배전 맨홀 보수·보강공법 (기술)에 대한 신기술을 개발한 대실중합건설(주)가 인증서를 받았다.

